

74억 가로채 사무장 요양·한방병원 적발

의료생협 등 악용 탈법 5곳 임원·한의사 등 13명 기소 개·폐원 반복해 요양급여 타고 대출받아 개인자금 유용

요양급여 74억원을 가로챈 사무장 요양·한방병원 5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임원·투자자·한의사 등이 조직적으로 보험범죄에 가담했고, 개·폐원을 반복하며 범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재연)는 28일 요양·한방병원을 반복 개·폐원 하면서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내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속칭 '사무장 병원' 실제 운영자 A(여·51)씨와 B(56)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투자자와 한의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9명은 2011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 3곳을 차례로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2011년 11월께 의료생협 명

의로 은행에서 29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대출금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도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원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완화한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임원으로 내세워 개인 자금으로 형식적 의료생협을 설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요양병원 운영 중 임금체불로 병원 실상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의료생협과 병원명만 바꾸 병원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등 4명은 한의사 명의로 2곳의 한방병원을 개설해 2010년 8월부터 2014

년 3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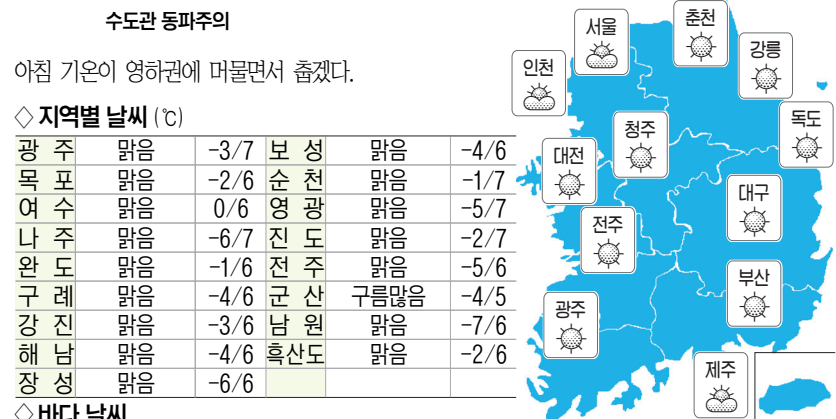
B씨는 약 1년마다 한의사 명의를 바꿔 개·폐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범망을 피해 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의료생협 임원, 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 준 한의사, 병원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개설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 등이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요양급여 타내기에 조직적으로 가담, 급여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병원 운영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해질 21:25
해짐 17:28 달뜨기 10:06



수도권 동파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다.

지역	날씨	기온(°C)
광주	맑음	-3/7
목포	맑음	-2/6
여수	맑음	0/6
나주	맑음	-6/7
완도	맑음	-1/6
구례	맑음	-4/6
강진	맑음	-3/6
해남	맑음	-4/6
장성	맑음	-6/6
성남	맑음	-4/6
대전	맑음	-1/7
충청	맑음	-1/7
경북	맑음	-5/7
대구	맑음	-2/7
부산	맑음	-5/6
제주	맑음	-4/5

◇바다 날씨

항목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생활지수

관심	체감온도
낮음	동파
높음	뇌졸중

◇물때

항목	밀물	썰물
목포	04:21 / 17:02	09:38 / 22:14
여수	11:40 / 23:46	05:10 / 17:41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C)
30(수)	☁	-1/9
31(목)	☁	1/6
1/1(금)	☁	-1/7
2(토)	☁	-1/7
3(일)	☁	1/7
4(월)	☁	1/7
5(화)	☁	1/7

“유관기관 공조...뿌리 뽑힐때까지 단속·수사 강화”

보험범죄 뿌리뽑자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근절 방안은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
“허위 입원 등 불법 행위 엄단
특별수사팀 가동, 고리 끊을것”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협회와 긴밀한 상시 공조체제를 유지해 지역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사무장 병원’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74억원대 보험사기를 밝혀낸 광주지검 김희준 차장검사<사진>는 28일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불법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지원을 통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불

법 운영하는 병원으로, 그 자체가 불법인데다 이익 추구가 목적이거나 허위 입원, 과다 입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을 일삼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화상태에 이른 한방병원에서 환자 유치를 위한 지나친 경쟁으로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검사는 “불법 사무장 한방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개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짧은 기

간 동안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범망을 피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부정부패 특별수사팀을 가동해 반드시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사무장 병원의 브로커들이 보험금 수령을 미끼로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며 “쉽고 편하게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의료사고 위험은 물론 적발되면 사기 공범으로 처벌되고 받았던 보험금도 모두 내놓아야 한다. 브로커의 꼬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고교 수업료 8년 연속 동결

내년부터 광주지역 일반고 입학금이 면제된다.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수업료는 8년 연속 동결됐다.

28일 광주·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했다.

내년도 광주 공·사립 일반고 수업료는 연간 134만8800원으로 책정됐고 특성화고는 130만9200원이다.

입학금은 ‘광주시 학교수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면제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8월 특성화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제외한 공·사립 일반고와 방송통신고 신입생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까지 고교 신입생들은 1만7200원의 입학금을 냈었다.

전남지역은 일반고 수업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연간 63만6000원~115만2000원, 입학금은 1만1800원~1만5900원으로 결정됐다. 특성화고 수업료는 지역에 따라 43만4400원~62만7600원, 입학금은 1만1800원~1만4800원으로 결정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춤춤한 안전망으로 시민 체감률 높이겠다”

강인철 신임 광주경찰청장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겠습니다.”

강인철(55)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28일 취임사에서 “경찰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에게 ‘가족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가 경찰을 통해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며 “어려운 처지의 시민을 돕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어떠한 훌륭한 성과도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적법 절차가 무시된다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진심으로 시민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일처림 처리



하며, 나아가 경찰의 입장과 활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신뢰 받는 경찰이 되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경찰이 즐거워야 주민도 즐겁다”며 “직장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 서강대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무안경찰서장, 경찰청 경무기획국 법무과장, 전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순찰·교통·복지...주민과 스킨십 늘릴 것”

박경민 신임 전남경찰청장

“지역 실정과 주민의 수요에 맞춘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박경민(52) 신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8일 취임했다. 박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사에서 “주민은 경찰의 고객이며 주인이다. 경찰의 책무는 고객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현장에서는 항상 경찰관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 주인의식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과의 스킨십을 위해 치안설명



회를 열 계획이다.

박 청장은 또 “과거에는 경찰의 역할이 소극적 질서유지기능에 한정됐으나 현재에는 국민의 요구가 범죄예방 순찰, 교통지도뿐 아니라 복지행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치안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안 출신인 박 청장은 목포고와 경찰대 법학과(1기)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에서 경찰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성경찰서장, 광주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대변인,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거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울 남도학숙 입사생 424명 모집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28일 남도학숙 내년도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 모집 인원은 424명(남 220명·여 204명)으로 광주·전남 각 212명이다.

남도학숙은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의 기숙사다. 입사 정원 850명(광주 425명·전남 425명) 중 계속 기숙사에 머물 학생 426명을 우선 선발하고 50%에 해당하는 인원은 신규로 뽑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